

(사)행동하는 양심 광주전남협, 김대중민주평화아카데미 개최



조국 최장집 김우창 함세웅

김대중 전 대통령의 철학을 만난다

31일~12월14일, 이해동·조희연·김태동·최협 등 강의
화순 도곡 DJ기념공간, 저서·사진·작품 전시
'1박2일 역사캠프'·'청소년 백일장 대회' 등도 진행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사상과 철학을 잇는다.' (사)행동하는 양심 광주전남협의회(회장 정진백)는 오는 31일부터 12월 14일까지 '제1기 김대중민주평화아카데미'를 개최한다. 전남도와 함께 진행하는 이번 아카데미는 지난 4월 화순군 도곡면 도곡 온천 지구에 문을 연 김대중 대통령 기념 공간에서 매주 금요일(오후 4시) 진행된다. 김 전대통령의 정신과 가치를 이어가기 위해 마련한 이번 아카데미의 강사진 면면은 화려하다. 첫강의는 (사)행동하는 양심 이사장을 맡고 있는 이해동 목사가 '행동하는 양심-자주와 대항의 이데올로기'를 주제로 진행하며 박영숙(안철수 재단 이사장·전 평민당 총재 대행)씨가 '김대중 대통령과 함께 한 한국현대사'를 주제로 강연한다. 또 조국(서울대 교수), 한상진(서울대

명예교수)씨는 '김대중 대통령과 인권, 정의의 힘-역사적 성찰과 미래적 전망', '김대중 대통령의 역정과 사상-지구적 민주주의자, 보편적 세계주의자 트랜스머의 세계관'을 주제로 강의하며, 조희연(성공회대 교수), 최장집(고려대 명예교수), 김우창(고려대 명예교수)씨도 '김대중 대통령과 한국 사회의 진보·세계화 과정', '김대중 대통령과 한국민주주의의 진화-민주·인권·복지', '김대중 대통령과 지도자의 길' 등을 주제로 시민들을 만난다. 그밖에 함세웅 신부, 박준영 전남도지사, 박지원 국회의원, 최협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장, 김태동 전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 등이 강사로 참여한다. 강의가 열리는 김대중대통령 기념 공간은 기부와 모금을 통해 마련된 곳으로 DJ의 생애와 사상, 철학을 한 눈에 볼 수 있다. 기념 공간은 연건평 495㎡(150평)

규모로 1층 북카페에는 김 전 대통령의 저서와 관련 서적, 생전 DJ 어록을 국내 유명 서예가들이 정성껏 글씨로 남긴 서예 작품 50점이 전시돼 있다. 또 로비에는 어린 시절부터 마지막까지의 DJ 모습이 고스란히 담긴 사진 100여점과 서양화가 사기문씨가 그린 DJ 초상화 4점이 걸려있다. 전남대 최협 교수가 기증한 5000여권의 사회과학, 인문학, 교양도서 등 책을 소장한 작은도서관도 1층에 운영되고 있으며 2층에는 강의실이 마련돼 있다. 9월 7일~8일 김대중 역사 캠프도 열린다. 김 전 대통령의 하의도 생가와 목포 김 전대통령 고택, 삼학도 노벨평화상 수상 기념관 등 김 전대통령의 흔적을 만날 수 있는 공간을 1박2일간 둘러보게 된다. 또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2012 김대중 정신 계승 전국 청소년 백일장 대회'도 개최한다. '김대중 전대통령 정신을 계승하여 미래 지도자를 꿈꾼다'를 주제로 공모하며 전남도지사상 등 총 240만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시와 산문 두 부문으로 진행하며 접수 마감은 오는 9월8일까지다. 문의 062-513-6513.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작품 속에서 나만의 편안한 생각 '쉼'

광주 출신 '비빔밥'팀, '숲, 숲, 숲 그리고 집' 비엔날레 참여

묘하게 어울린다. 9회 광주비엔날레(9월 7일~11월 11일) 주제인 '라운드 테이블'과 '숲, 숲, 숲 그리고 집'이라는 작품으로 참여하게 되는 지역 예술인 그룹 '비빔밥'팀에 가다.

'라운드 테이블'은 국가·이념·사회·문화적 차이를 넘어 서로 다른 생각들을 한데 모은다는 의미. '함께 하는 것'의 중요성이 강조된 만큼 다양한 문화적 스펙트럼을 지닌 작가들이 모이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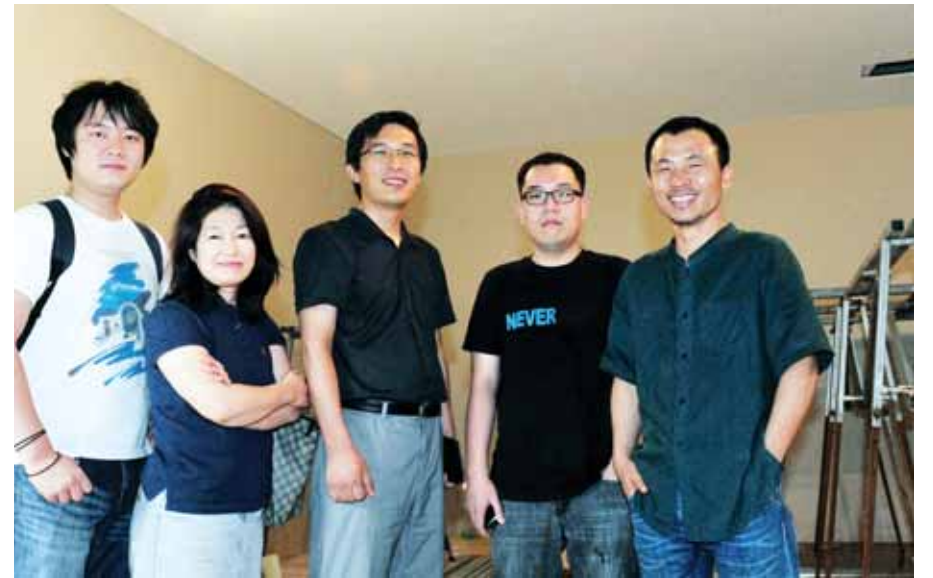
이런 면에서 '비빔밥'은 딱 들어맞는다. 지역 출신인 강운·김한열·박상화·장한별·이매리씨 등 5명으로 구성된 '비빔밥'팀은 세대도 다르고 추구해온 장르도 다르다. 각각 다른 생각의 예술인 5명이 장르의 화학적 융합을 모색하면서 나온 게 '숲, 숲, 숲 그리고 집'이라는 작품이다.

비엔날레가 개막되면 전시관 앞 심어진 대나무와 느티나무 속에 들어앉은, 500개가 넘는 검정색 거울로 둘러싸여지는 22평짜리 공간이 이들의 작품.

작품 안에 들어서면 향기, 바람소리 등이 들려 사뭇 편안한 분위기가 느껴지는데, 이때 3면의 반투명 스크린을 통해 시성(詩性)이 내재된 한글 자음과 모음이 다양하게 조합하면서 관람객들에게 다양한 '쉼'의 답답을 펼쳐보이게 된다. 관람객들 스스로 자신들의 '쉼'에 대해 얘기하고 생각해 보는 계기를 제공하고 싶다는 게 이들 구상이다.

서양화가인 강운씨가 작품의 '숲, 숲, 숲'이라는 개념 디자인을 담당했다면 설치 작품에 공들여온 이매리씨는 편안한 쉼터 역할을 하는 공간 디자인을 책임진다. 미디어 전공인 박상화씨는 3면 반투명 스크린에 투사되는 영상작업을 맡았고 공화도인 장한별씨는 에너지가 정지된 듯한 '쉼'의 의미를 담아 한글 자음과 모음이 조합하는 프로그래밍 아트를 선보인다.

경영학부 학생인 김한열씨는 SNS를 통해 실시간 전달되는 작품에 대한 관람객들의 질문을 전시 공간에 보여주고 되돌면서 소통의 답문을 형성하는 과정을 책임지게 된다.



김한열·이매리·박상화·장한별·강운(사진 왼쪽부터) 등 지역 출신 예술인들로 구성된 비빔밥 멤버들이 22일 비엔날레 기간 선보일 작품 '숲, 숲, 숲 그리고 집' 안에 모였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아시아 출신 6명의 공동감독이 한 주제에 맞춰 각자의 서로 다른 생각을 공유하면서 기획한 전시가 광주비엔날레라면 5명의 예술인이 각 전공 분야의 의견을 나누며 한 작품을 만들어가는 게 비엔날레에 참여하는 '비빔밥'인 셈이다.

비슷한 면이 참 많다. 올 비엔날레에 참여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온다.

박상화씨는 "뭔가 해보자는 식으로 만든 건 아니고 1년 전부터 '무등산'이라는 풍부한 자료를 기반으로 각 전공 분야의 경험과 지식을 동원해 토론하며 미술과 인문학적 접근을 모색해왔다"고 말했다.

강운씨는 "모두들 다른 분야를 들여다보는 게 재미있어 지속적으로 만나고 있는데 김진성 공동책임감독이 알게 됐고 참여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자기 주장과 개성 강한 예술가들 5명이 뭉친 만큼 한 번에 결정된 적이 없을 정도로 험난했다.

모두들 "모임 전 각자 의견을 미리 준비 해와도 결정이 안돼 다른 날로 미루는 경우도 많았고 한 달이면 충분할 듯한 의사 결



작품 외관을 500개가 넘는 검정색 거울로 두르는 작업이 한창이다.

정도 우린 4~5달이나 걸렸다"고 했다.

이 과정에서 "함께하려면 상대방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한데 뒤섞이면서 질실질 느꼈다고 한다.

박상화씨는 "비엔날레가 두 달이나 열리는 건데, 관람객들이 저희 작품 속으로 들어와 편안하게 쉬면서 자신들의 '쉼'을 생각하는 시간을 갖고 시민들의 다양한 '쉼'에 대한 의견이 이야기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김지윤기자 dok2000@kwangju.co.kr

헤민스님 '멈추면, 비로소...' 100만부 돌파 출간 7개월만

헤민 스님의 에세이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출간 7개월 만에 100만 부 판매를 돌파했다. 출판사 쌤앤파커스는 지난 1월 발간된 '멈추면...'이 지난 24일 기준으로 100만8천 부 가장 팔려나간 것으로 집계됐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지금까지 190만부가 팔리며 '멘토 돌풍'을 일으킨 김난도 서울대 교수의 청춘 공감 에세이 '아프니까 청춘이다'가 8개월 만에 100만부를 돌파했던 데 비하면 1개월 가장 기록을 앞당긴 것이라고 출판사는 설명했다.

'멈추면...'은 중국, 대만, 일본 출판사와 관련 계약을 하는 등 해외로도 진출할 예정이라고 출판사는 전했다. /연필뉴스



'지역 전략산업으로서 문화산업'

한은 광주전남본부 내일 '2012년도 지역경제 세미나'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본부장 장태규)는 29일 오후 3시 광주시 서구 치평동 한국은행 강당에서 '2012년도 지역경제 세미나'를 연다. 이날 세미나는 '지역 전략산업으로서 문

화산업 육성 방안'을 주제로, 최종일 조선대 경제학과 교수가 발표한다.

이어 토론은 이무용 전남대 문화전통대학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며, 권기영 전 컨텐츠진흥원 북경사무소장, 김락균 콘텐츠진흥

원 금융투자지원팀장, 이정현 전주대 문화산업대학 교수, 박광석 광주시 문화예술진흥과장, 양근화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산업진흥본부장, 박복길 전남문화산업진흥원 전략사업팀장, 오세형 아시아문화개발원 사업개발팀장이 참여한다.

한편,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는 지난 1992년부터 지역경제 현안에 대한 정책 대안 및 비전을 제시하는 '지역경제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Hansaton (Hansaton) celebrating 30 years. It features a 30% OFF SALE and lists various branches with phone numbers. The logo includes the text 'SINCE 1982' and 'www.kjhr.com'.

Advertisement for Bukgodang Hanakbap. It promotes health benefits of ginseng and other ingredients, featuring a bowl of soup and a price reduction from 60,000 to 15,000 won. The text includes '보약, 홍삼은' and '가족의 건강~ 환한 웃음~ 지켜 드립니다.'